

4년제 대졸자의 교육과정 선택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

- 교양 과목 중 외국어 및 인문학 영역의 수강비율이 인문·사회계열 졸업생에서 높게 나타났고, 공학계열 졸업생의 경우 수학 및 기초과학교육 과목 수강 비율이 높은 편임.
- 인문계열 및 공학계열 전공자의 경우 인접분야 전공과목 수강 비율이 미취업자에 비해 취업자에서 높게 나타남.
- 공학계열과 인문계열 전공자의 경우, 수학 및 기초과학교육 영역에 대한 과목 수강이 첫 직장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수학 및 기초과학교육 과목의 수강은 취업 이후 일과 기술 및 능력수준, 또는 교육 수준과의 적합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

주

이 글은 2019년 수행 중인 백원영 외(2019),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 - 교육과정과 노동 시장 이행'의 일부를 발췌, 재구성한 것임.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실천 방법의 틀을 변화 시켜오고 있음.

-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사회 인력 수요 변화 등은 대학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를 유발하고 있음.
 - 다양한 학습자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편과 운영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학생들의 영역별 이수 현황 및 노동시장 이행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에 유용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그간 실증 자료의 한계로 인해 고등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이 경험한 교육과정, 즉 과목 수강 현황과 이행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어려웠음.
- 이 글에서는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의 교과목에 대한 수요에 주목하여, 과목을 기반으로 한 영역별 수강 현황을 살펴보고 첫 직장 취업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분석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I』

- 분석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8~2015년 조사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I』 5차년도~12차년도 자료와 일부 패널을 대상으로 수집한 성적표 자료를 연계하여 분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매년 수행해 온 패널 조사에 더하여, 11차(2014)년도와 12차(2015)년도에 4년제 일반대학교 졸업생 중 일부를 대상으로 성적증명서를 취합하여 대학 재학 기간 동안 수강한 과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였음.
- 분석 대상: 2008~2015년 4년제 대학 졸업생 중 성적표 자료가 있는 인문, 사회, 공학계열 전공자 85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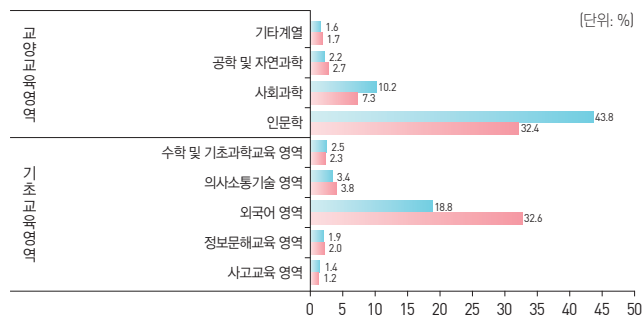
02 전공계열별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의 영역별 수강 현황

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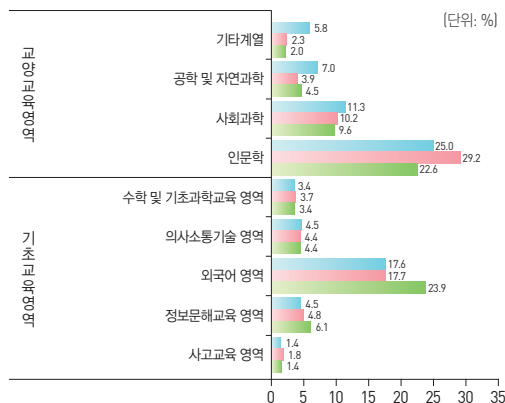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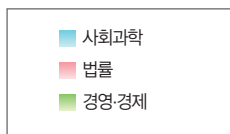
1) 본 연구에서는 교양 교육과정을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양교육표준안'에 따라 기초교육, 교양교육, 소양교육과 그에 따른 세부 영역으로 분류함.

기초 교육과정에서는 인문 및 사회계열의 경우 외국어 영역의 수강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공학계열의 경우 수학 및 기초과학교육 영역의 수강 비율이 높은 편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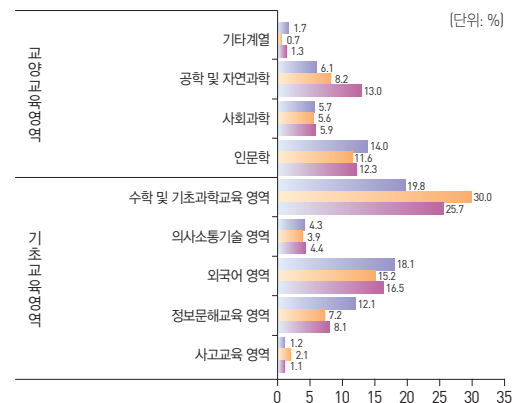
- 인문 및 사회계열에서는 외국어 영역의 수강 비율이, 공학계열에서는 수학 및 기초과학과 관련된 교과목 수강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기초교육 영역 중 외국어 영역 수강 비율의 평균은 인문계열 언어·문학 전공생의 경우 약 32.6%로 나타난 반면, 인문과학 전공생은 약 18.8%로 나타남.
 - 사회계열에서 외국어 영역의 평균적인 수강 비율은 경영·경제 전공생의 경우 약 23.9%, 법률 전공생은 약 17.7%, 사회과학 전공생은 약 17.6%로 나타남.
 - 공학계열에서는 외국어 영역의 수강 비율이 16.5%인 반면, 수학 및 기초과학교육 영역의 수강 비율은 25.7%로 나타남.
- 교양교육 영역에는 기초 학문의 성격을 지니는 교과목이 포함되고, 인문, 사회, 공학계열 졸업생의 경우 인문학 교양 과목 수강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교양과정 중 인문학 교양 과목 수강 비율의 평균은 언어·문학 전공생의 경우 약 32.4%, 인문과학 전공생은 약 43.8%인 것으로 나타남.
 - 사회계열 졸업생 또한 인문학 교양 과목의 수강 비율이 다른 기초학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경영·경제 22.6%, 법률 29.2%, 사회과학 25.0%).
 - 공학계열 졸업생의 경우 인문학과 공학 및 자연과학 교양 과목의 수강 비율이 각각 12.3%, 13.0%로 나타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림 1] 인문계열 졸업생의 교양교육 영역별 수강비율



[그림 2] 사회계열 졸업생의 교양교육 영역별 수강비율



[그림 3] 공학계열 졸업생의 교양교육 영역별 수강비율

전공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계열의 경우 타 전공 과목 중 공학 및 자연계열의 전공 과목 수강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인문계열 졸업생의 경우 사회계열 전공 과목의 수강 비율이 높은 편임.
 - 언어·문학 전공생의 경우 경영·경제 과목 수강 비율이 약 13.1%, 기타사회계열 과목 수강 비율이 약 14.7%로 나타남.²⁾
 - 인문과학 전공생의 경우 경영·경제 과목 수강 비율이 약 9.1%, 기타사회계열 과목 수강 비율이 약 34.0%로 나타남.
- 사회계열 졸업생의 경우 데이터마케팅, 멀티미디어 공학, 수학 관련 과목 등이 포함된 공학 및 자연계열 분야의 전공 과목 수강 비율이 높은 편임.
 - 공학 및 자연계열 과목 수강 비율의 평균은 경영·경제 전공생의 경우 약 9.1%로 나타났고, 사회과학 전공생의 경우 약 14.2%로 나타남.
- 공학계열 졸업생의 경우 인접분야인 자연계열 전공 과목 수강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자연계열 전공과목 수강 비율의 평균은 공학계열 전체에서 약 16.0%로 나타났으며, 전기·전자 전공생은 약 13.9%, 컴퓨터·통신 전공생은 약 10.9%로 나타남.

각주

2) 사회계열 전공 과목의 경우 경영·경제와 기타사회계열로 구분하였고, 기타사회계열에는 법률, 가족·사회·복지학, 국제학, 도시·지역학, 사회학, 언론·방송·매체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등의 학문 분야에 해당하는 과목을 포함함. 학과 분류 체계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 통계서비스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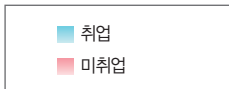
03 영역별 수강 과목과 첫 직장 취업 성과

인문계열 및 공학계열에서 취업자의 수학 및 기초과학교육 영역의 과목 수강 비율이 미취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인문계열 및 사회계열 졸업생의 경우 기초교육 중 외국어 영역의 과목 수강 비율이 높지만,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차이가 없음.
 - 인문계열의 경우 교양 교육과정 중 수학 및 기초과학교육 영역의 과목 수강 비율이 취업자 3.7%로, 미취업자(2.0%)에 비해 높음.
- 공학계열 졸업생의 경우 사고교육, 정보문화교육, 수학 및 기초과학교육 영역에서 취업자의 과목 수강 비율이 미취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 과정, 컴퓨팅 사고, 기초 과학 등과 관련된 과목 수강 비율이 취업자에서 높게 나타남.
- 인문계열 및 공학계열의 경우 인접분야의 전공 과목 수강 비율이 미취업자에 비해 취업자에서 높게 나타남³⁾.
 - 인문계열의 경우 취업자의 인접분야 과목 수강 비율은 16.2%로 미취업자(7.7%)에 비해 약 8.5%p 높음.
 - 공학계열의 경우 자연계열을 포함한 인접분야 과목 수강비율이 취업자 51.2%로 미취업자 43.5%에 비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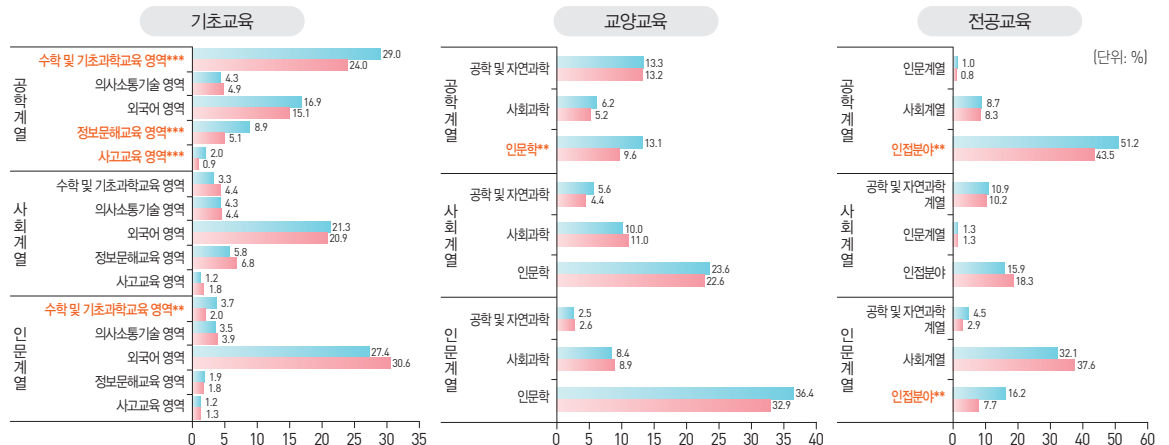
각주

3) 인접 분야는 전공 대분류 수준에서 자신의 전공과 동일하면서, 중분류 수준에서 자신의 전공 외에 다른 분야로 정의함. 예를 들면, 인문과학 전공생이 언어·문학 분야의 전공 과목을 수강한 경우 인접 분야에 포함됨.



주

는 5%,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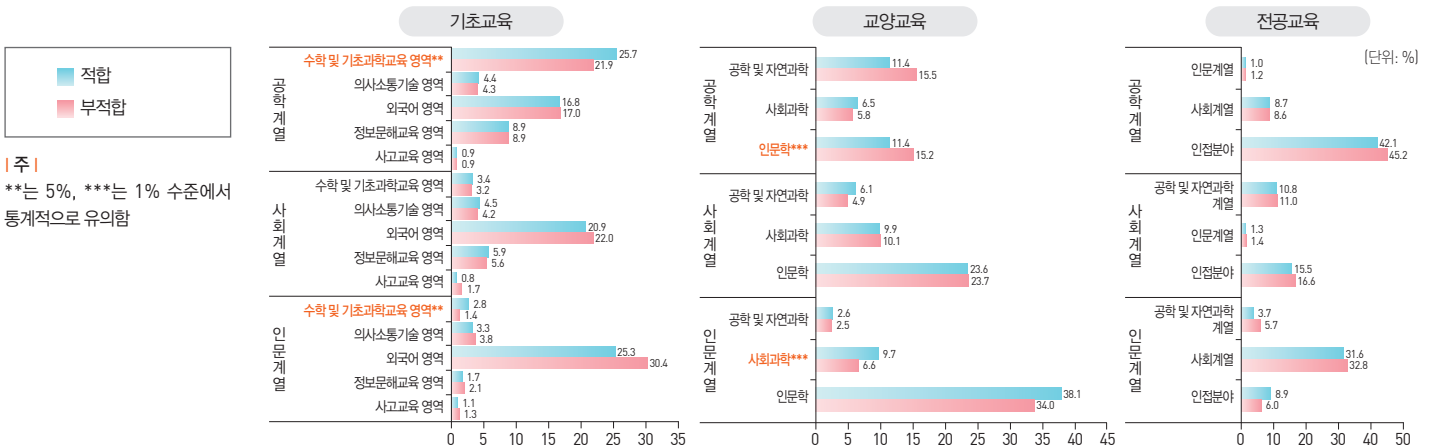


[그림 4] 취업 여부에 따른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의 영역별 수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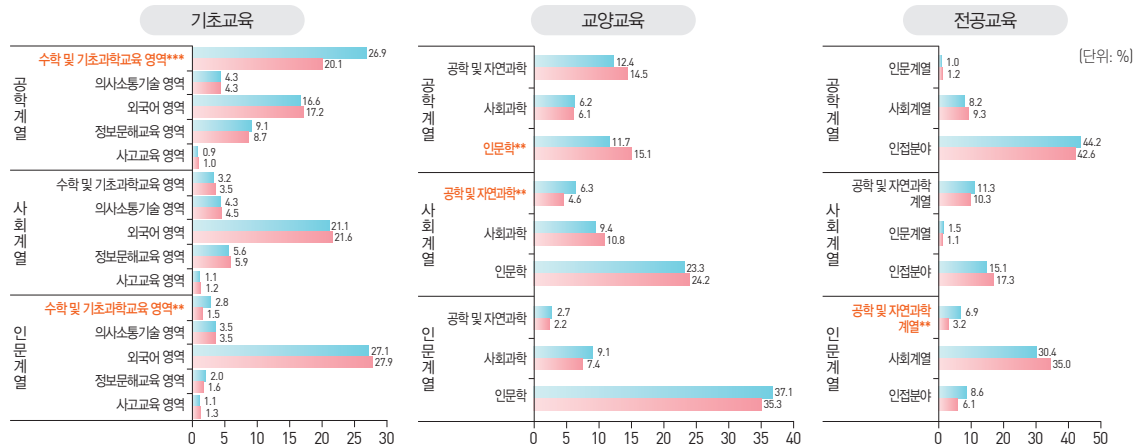
수학 및 기초과학교육 영역은 일과 기술 및 능력수준, 또는 교육 수준과의 적합도에
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짐.

- 인문계열에서 수학 및 기초과학교육 영역의 과목 수강 비율의 절대적인 수치는 낮지만, 일과 기술·능력·교육 수준과의 적합도 여부에 따라 수강 비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인문학 교양 과목 수강 비율의 경우 공학계열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일의 수준이 기술 및 능력 수준, 또는 교육 수준과 적합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인문계열에서 일과 교육 수준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경우 공학 및 자연과학 분야의 전공 과목 수강 비율이 6.9%로 그렇지 않은 경우(3.2%)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일과 기술 및 능력 수준 적합도〉



〈일과 교육 수준 적합도〉



[그림 5] 일과 기술·능력·교육 수준 적합도에 따른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의 영역별 수강 현황

04 시사점

- 교육의 직접적 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대학 재학 기간 중 수강 과목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교양 교과 중에서 외국어 능력과 관련된 기초 학문과 인문학 분야의 과목 수강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수학 및 기초과학과 관련된 지식 또는 역량은 공학계열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에서도 노동시장 진입 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예상해볼 수 있음.
- 자신의 전공 과목 외에도 인접 분야와 이질적인 분야(인문사회계열-공학계열)에 대한 과목의 수요도 존재하고 있음.
- 대학에서는 교육과정 설계 시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와 사회 변화에 따라 필요로 하는 역량 및 지식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백 원 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